

데스크 시각



채 희 중
정치당 편집국장

가족이 사라지고 있다. 조금 과장하면 소멸하는 중이라고 해야 맞겠다. 1980~1990년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은 도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때는 시골 사는 부모가 아프면 도시 사는 자식들이 모셔와 함께 지내는 것이 상례였던지라 지금의 중·장년층 가운데 대가족 생활을 경험한 이들이 많다.

20년만에 1인 가구 3배 증가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핵가족화와 혼인율·출산율 저하가 가속화되면서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은 TV드라마, 아동 하회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가족 형태가 됐다. 자녀들은 대학을 가거나 성인이 된 때도 분가를 하고 직장인들은 함께 살던 부모도 아프면 요양 병원에 보내야 하는 현실 탓에, 한 가족의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혼자 살면서 결혼을 늦추거나 꺼리는 경우가 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750만 2350가구로 총 가구 중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인 가구는 28%, 3인 가구 19%, 4인 가구 5% 순으로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비율은 낮았다. 1인 가구가 현대사회

가족끼리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 국내 1인 가구는 2000년 225만 이던 것이 2020년 664만, 2022년 750만여 가구로 2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1인 가구가 10가구 중 적게는 3가구, 많게는 4가구인 셈이다. 특히 광주시의 1인 가구는 26만 가구로 전체 가구(65만)의 40%를 돌파,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1인 가구의 급증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의 증가가 큰 몫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결혼 건수는 매년 줄어듦과, 이혼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광주시의 지난 한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4902건, 2360건으로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꼴로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자들은 가족이 사라지는 이유를 비싼 주거비와 양육비, 교육비 등에 따른 결혼 기피 현상에서 찾는다. '결혼은 중산층 이상의 문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출산은 말해 더 무엇하겠는가. 결국 가족을 꾸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을 담당할 여성 입장에서는 일과 사랑(가정·육아)을 병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여성이 일을 하려면 결혼이 어렵고, 설사 결혼을 했더라도 육아가 힘든 탓에 임신을 꺼려 가족의 구성원 수는 줄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족이 사라져 가지만 뾰족한 대책도, 또 걱정하는 이들도 없는 것처럼이다. 사실 가족만큼 힘들게 하는 대상도 없다. 상황에 따라 결혼은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고 자식은 영원한 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소멸과 1인 가구의 등장은 그 미래가 밝지 않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향후 1인 가구는 독자 노인의 비중이 압도적일

것이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물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로서는 복지 수요의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가족은 이제 사라질 만큼 쓸모가 다한 것일까.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윤리와 종교들이 하나 같이 가족 사랑과 소중함을 가르쳐 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가족은 가장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1846년 겨울, 서부를 향한 여정에 오른 81명의 무리가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 지역의 산맥을 넘다가 폭설 때문에 돈너 계곡에 갇혔다. 이들은 11월 말부터 구조 되던 이듬해 4월까지 무려 다섯 달 동안 변변한 텐트나 침구 없이 계곡에 갇혀 지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 여성, 건강한 남성, 가족 등 구성이 다양했다. 태반이 숨졌는데 누가 살아 남았을까. 누가 봐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20~30대 건강한 남성들이 생존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여덟 살짜리 어린이와 노인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던 것이다. 조사 결과, 최고의 희생자 그룹은 건강한 독신 남성들로 15명 중 12명이 숨졌다. 반면 가족단위 그룹은 무려 9명의 대가족 전원이 살아남는가 하면 한 가족 12명 중 8명이 살아남는 등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가족만 한 것이 없다. 개개인의 능력이나 리더의 지도력에 중요하지만 가족의 유대와 사랑이 훨씬 효율적임이 입증된 것이다. 가족은 가장 완벽한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안전망이 아닐까. 가족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던 추석 연휴의 단상이다.

社說

씨늘한 추석 민심... 민생 회복만이 해법

가족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만나는 명절 연휴는 민심의 풍향계를 읽기 좋은 때다. 특히나 이번 추석 연휴는 6일이나 된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영장 기각 등 이슈가 많은 탓에 정치가 밥상머리의 화두가 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민심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싸늘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를 비롯해 민심은 입체점에 왔는데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 매달려 민생은 돌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넘은 분노를 인정한 점에서는 일치했다.

민심은 정부 여당에 대해 소통없는 일방적인 폭주에 대해 비판하면서 야당과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호남이 본산인 만큼 애정어린 지적도 있었지만 무능력에 대한 질타와 함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주류인 친명계의 비명계에 대한 '속아내기' 등 당내 분란을 우려하며 단합과 재정비를 주문했다.

한편에선 민생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당과 제1 야당 주도의 양당 정치의 패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원인을 파악했다면 마땅히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법의 제1 원칙은 오직 민생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에 집착하기 보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파악해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정치는 결국 중도층의 정치 혐오만 키운다는 점을 명심하고 추석에 확인된 민심의 풍향계를 잘 읽고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록도 천사' 마가렛 박애정신 이어야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40여 년간 봉사하며 '소록도의 천사', '한센인의 어머니'로 불린 마가렛 피셔(한국 이름 백수선) 간호사가 지난달 29일 세상을 떠났다.

폴란드 태생의 오스트리아 국적자인 고인은 인스브루크대학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구호단체 다미안재단 의료진 일원으로 1966년 한센인들이 격리 수용된 소록도에 파견됐다. 5년간의 공식 근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지난 2005년까지 소록도에 남아 한센인들을 돌봤다.

고인은 동료 마리안느 스터거(한국 이름 고진선)와 함께 'M치료실'에서 맨손으로 환자들의 깃무른 손발을 소독하고 피고름을 직접 짜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환우들을 'M관사'로 초대해 직접 빵을 구워주고 식사를 함께 했다. 소록도 사람들은 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파란 눈의 두 사람을 '큰 할매

(마리안느)'와 '작은 할매'(마가렛)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수년 전 찾아온 'M관사'내 단촐한 방 창문에는 '사랑', '하심(下心)' 등과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들의 청빈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70대에 이른 두 사람은 2005년 11월 "이 편지를 읽은 당신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하늘만큼 감사합니다"라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조용히 소록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 봉사한 고인의 이타적인 삶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울림을 준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태 속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한센인들과 함께 하며 헌신한 고인의 삶은 찬란하고 숭고하다. 우리는 고인의 나눔과 섬김의 봉사정신을 되새기며, 이를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박애·봉사정신은 한국 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은편칼럼



송민식
수필가·전여천교회 교장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연고주의다.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연고주의는 공조적은 물론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지역 갈등과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중에서도 인위적 요소가 두드러진 것이 학연이다.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 문화' 속에서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될 리 없다. 채용과 승진 등 인사가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고 자기 사람 키우기만 성행할 뿐이다. 정계, 관계, 교육계 등에서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상위권 대학만 나오면 능력을 따지지 않고 그것만으로 출세가 보장되는 학벌 중심 사회다. 전문대나 고교 졸업 정도로는 대졸자를 앞서가기 어려운 사회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고졸 출신인 김대중과 노무현도 '대학 졸업장이 없

가방끈이 전부가 아니다

다'라는 이유로 여러 곳에서 공격받았다. 이런 공격은 보수 세력에서만 터져 나온 것이 아니다. 진보도 그 지독한 엘리트 의식 때문에 두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교에 가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지도력, 능력, 자질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당시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붙은 노 전 대통령의 '학벌 콤플렉스'를 건드렸던 박 모 검사의 발언은 국민에게 많은 공분을 일으켰다. 노 대통령은 "오늘은 대통령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등문 중심으로 뭉쳐 사회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 기득권 위지를 위해 목적적, 배타적으로 정상적인 엘리트 순환을 방해한다. 특히 지방대 출신을 소외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런 풍토에서 창의적 인재가 길러질 수 있겠는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정주영 회장을 불러 "소학교 출신이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온 직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느냐?"고 묻자 정 회장은 "신문 대학을 나왔다고 답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

미국의 최고 갑부 400명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런 추세라면 학벌을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반드시 대학을 나와

야 성공한 인생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40%를 조금 웃돈다. 미국인 10명 중 적어도 다섯 명이 이상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미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위를 차지 한 대답은 '우리 부모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잘살고 있다'다. 1위는 등록금이 비싸서, 2위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하고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기준을 두는 학벌 중심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인(in)서울 대학'이라도 나와야 사람 대접 받는다는 풍조가 요즘 사회 전반에 가득하다.

인생에서 가방끈이 전부가 아니다. 명문대생이란 질풍노도의 시기에 남보다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나 방황을 덜 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10대 후반에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어 평생 지속되는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다.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경쟁 속에서 학벌이나 학력에만 안주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선진사회가 되려면 '학력의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학벌주의 문화는 마땅히 타파되어야 한다.

기고



김정희
전남대 명예교수

인간은 누구나 생의 끝자락에 서면 한 번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삶에 대한 느끼는 허무하고 허탈할 뿐이다. 왜? 시작에서의 삶은 위대하고 소중했지만 마지막에서는 그 삶이 아주 소소한 의미로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삶의 시작과 끝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작과 끝은 근원적으로 하나로 연결된다. 삶의 각 단계들에서 인간은 독특한 사명과 변형, 멋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단계들의 독특한 위기와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노년에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꺼번에 체험하게 된다.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그 단계들의 체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나이가 지듯이 우리 몸이 늙어간다. 삶의 단계들에서 우리의 마음은 슬퍼 말고 용감하게 작별을 고하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 안에 삶의 마법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고향이 그리워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애착을 두게 된다. 그러나 마음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애착을 두지 말고 공간에서 공간으로 가볍게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계정신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속박

노인의 기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 삶의 기본 틀은 노년에 확실하게 드러난다. 노년은 고귀하고 값진 삶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선 노인은 이웃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여유를 가져야 하며, 성숙(聖俗)의 강요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내면의 세계 속으로 여행을 떠나야 하며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하고, 그 추억들을 평온 속에서 향유해야 한다.

그러나 늙어가는 과정에서 노년은 신체적 기력과 정신적 능력이 떨어져 노쇠와 질병만 증폭되고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므로 이러한 공간을 확장시키려면 노인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노년의 필수적인 덕목은 늙어감을 슬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솔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늙어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은총이며 총만이다. 지금까지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늙어감의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그러한 체험의 총만과 더불어 늙어감의 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선물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년층'도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 은퇴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노년층,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그리고 노쇠 또는 치매와 같은 개체변화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로 구분된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노쇠함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거나 올바르게 존중하는 공간을 아직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수명은 길어졌지

만 노인의 삶은 질적으로 아직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노인들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노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 노인의 삶은 더 이상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시간만 점점 더 늘고 있다. 노인은 결국 사회에 짐이 되며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도움의 요청은 바로 삶에 속한다. 우리 모두는 젊었을 때 병들지 않을 것처럼 늙어감을 외면하고 살았다. 한데 정작 늙고 병들어 홀로 남겨 되고서야 도움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사회적 돌봄의 결핍을 자각한다. 이러한 도움의 요청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선물이다.

노인의 존재는 당연히 무익하고 비생산적인 대상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문화에서 비롯된 사유의 결과 또한 젊음과 늙음을 갈라친다. 그래서인지 요즘 대다수 사람들은 젊음과 늙음을 갈라치는 것이 별로 나쁘지 않고 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현대인을 스스로가 왕따문화와 소외문화에 마비되고, 소비문화에 깊숙이 매몰되어 버렸다.

젊음과 늙음을 가르는 문화는 상처와 낙담으로부터 공포를 확산시키기에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의 존재가 무익하다고 노인을 젊은이로부터 떼어놓는다면 그런 문화에서 배우고 자란 젊은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어찌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노인의 존재가 무시된 곳에서 우리의 양심은 선을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없다.

無等鼓

이제 누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당혹스럽다. 예전과는 달리 태어나 자란 곳과 현재 생활하는 곳이 다른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럴 땐 보통 '아버지가 사는 곳'을 고향으로 말하지만 애매한 문제인 건 분명하다.

고향을 대체할 수 있는 말로 본적(本籍)을 들 수 있겠다. 본적은 호적 제도하에서 호적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됐다.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가리키는 말로 한 개인의 출생지이자 고향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태어난 곳과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혼돈이 왔고, 지역 차별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2008년 이후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으로 변경돼 쓰임새를 다했다.

데어내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림그려 정든 장소 정도로 타향살이가 늘어 태어난 곳과 살아가는 곳이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도시

에 정착한 세대는 시골(지방이라는 의미의 확대)과 도시라는 두 가지 경험을 가져서 고향은 명절·제사와 생일 등 생애적인 측면의 중심이고 주소는 현재 생활적인 측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의 정의도 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향의 위기

우리는 이제 의미를 달리해 위기의 고향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농어촌이 초고령화 됐고 인구 위기로 소멸하는 시점에서 고향은 고향 집이나 고향 마을, 고향산천, 고향 사람들로 표현되는 시골의 정든 모습을 잃은지 이미 오래다. 고향에 살고 있다면 아름답게 보존하거나 훌륭하게 발전시킬 대상이

행되면서 태어난 곳과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혼돈이 왔고, 지역 차별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2008년 이후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으로 변경돼 쓰임새를 다했다. 데어내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림그려 정든 장소 정도로 타향살이가 늘어 태어난 곳과 살아가는 곳이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도시

고, 객지에 있다면 뭔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걱정거리가 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을 사주어 고향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 갈수록 커져가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채워주는 값진 일이 될 것이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Table with 4 columns: 편집국안내,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전담부,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Kwangju Ilbo.